

레드리본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별, 성별로 한 명씩 에이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싣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그 두 번째로 20대의 생각을 들어본다.

# 무엇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글 고정석 · 경원대학교 04학번

**인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거대한 질병을 겪어왔으며, 그것을 극복해왔다. 지금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병에도 과거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 지금 우리가 불치병으로 여기는 많은 병들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주위에는 정말 많은 질병과 고통이 있으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들 말한다.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세계는 이를 걱정하고 주시하지만, 정작 우리 나라사람들은 무감각하고, 일부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믿는 것인지,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하다.

## 에이즈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현재까지 에이즈는 완전히 낫게 할 치료법이 없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장난삼아 하는 농담이지만, 흔히 아주 무서운 선생님을 일컬어 에이즈라고 부른다. 걸리면 죽는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에이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상징하는 동시에 가벼운 농담소재가 되기도 한다. 보

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이즈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걸리며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를 무분별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에이즈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 존재하며 그 중 상당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다. 어느 누가 에이즈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을 문란한 성범죄자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에이즈는 걸린 당사자보다도 그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에이즈는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도 많이 막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5~6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에이즈 안전국이라 말하던 우리나라에도 에이즈환자가 3000명이 넘어섰다. 분명히 올바른 예방법을 배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런 '재앙'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백 원짜리 동전 하나. 이것이면 3초당 1명씩 사람이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 한 끼 식사를 줄 수 있다. 단돈 천원이면 열 명이 배부르게 밥을 먹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에이즈란 병을 밝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지구공동체니 지구촌이니 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대한 대륙 하나와 지구의 많은 부분이 시커멓게 썩어들어가고 있다. 정작 그들을 죽이는 건 사회의 무관심이다.

####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은 에이즈를(완치는 아니더라도) 치유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인 왕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8~90%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

과 오해, 사람들의 무지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보기보다는 지저분한 성범죄자로 매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희망조차 없애버린다.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점점 더 확대되어 생각보다 쉽게 감염되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에이즈환자와 악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잡기조차 꺼려한다. 결국 에이즈환자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같은 사람으로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죽음과 싸우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하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하지만 아직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작은 웃음마저 빼앗고 있다. 정작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라기보다 사람들의 지나친 무관심과 외면이 아닐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도 있지 않은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귀하다. 어느 누구도 외면당해서는 안 되고 고통 속에서 홀로 괴로워해도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에이즈 환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치유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